

2) 신령한 집이라거나 신령한 제사라고 할 때의 그 '신령한'은 헬라어 '프뉴마'의 형용사 변형인 πνευματικός입니다. 2절에 나오는 신령한 젓과 여기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제사에 똑같이 '신령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으나 헬라어 성경으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은 로기코스이고 5절은 프뉴마티코스입니다. 고대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과 영성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을 비슷한 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사람은 내공이 강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이라는 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의 의미를 협소한 구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거꾸로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1990년 2월14일에 보이저 1호가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 쪽으로 돌려서 찍은 사진에는 지구가 작은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61억 킬로미터였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을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주 안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 행성인지를 아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행성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도 일종의 빛입니다.

4) 베드로전서가 가리키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은 예수 그리스도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즉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성취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도 멀리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까요?

5)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기에 복음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인식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길로 인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율법적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교회당 건축과 교회 조직의 활성화와 제자 훈련과 선교와 전도 전략 등이 모두 큰 틀에서 볼 때 율법 패러다임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업적주의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욕망입니다. 그런 업적 중심의 신앙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기진맥진하든지 위선에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 어떻게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5월14일

부활절 여섯째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25주



정 목사 집 현관문 바로 앞마당에서 '매발톱꽃'이 독특한 모양을 뽐내고 있다. 시나브로 시드는 중이다. (2023년 5월9일 오후에 찍은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5월의 한반도는 생명의 색깔로 화려하다 못해 찬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힘과 신비가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밀려드는 계절입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 세상에서 짙어졌던 걱정과 맛보았던 쾌락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1, 2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더불어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의무이자 권리이기에 지금 기꺼운 마음으로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정한 정도의 가치와 의미가 있으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만이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중의 어느 한 사람도 이런 믿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십시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생명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심이 분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영광송) ... 다 함께



## [ 알리는 말씀 ]

\*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오는 목요일인 5월 18일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1980년 5월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형식적인 민주화는 이뤄졌으나 내용적인 민주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참된 민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겠지요.

\* 서울샘터 교우 모임

- 날짜: 5월 27일(토) 오후 12시부터
- 장소: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 마을(운동회 집사님 댁)
- 프로그램: 짧은 강의, 아차산 입구까지 산책,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 회비: 성인만 1인당 1만원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지난주일(5월 7일) 헌금: 520,000원(주일헌금 50,000원, 선교헌금 100,000원, 통장헌금 37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5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5월 21일	박재진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5월 28일	김동호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 이유선 /시청각실

## 지난주일(5월7일) 설교 발췌

제목: 어둠에서 빛으로! (벤전 2:2~10)

1) 일단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짚겠습니다. 'λογικός, ἁδολος, γάλα'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는 각각 reasonable, pure, milk입니다. 헬라어 '로기코스'는 '합리적'(rational)이라는 뜻과 '영적'(spiritua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로기코스를 뭔가 산신령 같은 그림이 떠오르는 '신령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려면 '이성적인'(루터- vernünftig)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성을 무시하고 열광적인 종교심에 치우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4장 (주 우리 하나님)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세계 교회력에 따른 부활절 여섯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흠어져서 '살아있음'의 신비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며, 일상에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공동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여지없이 훼손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폭력과 조롱과 냉소가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세상살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쏟아낸 생각과 말로 인해 상처받은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짧았고 인내심도 크게 부족했으며, 사랑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지난 2천 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마땅히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임성숙

이건용

느린 곳거리

1. 내 가 산 - 을 향 하 여 눈 - 을 드 네  
 2. 나 의 가 - 는 발 하 결 - 음 지 - 키 시 네  
 3. 야 궤 님 - 은 나 - 를 지 키 시 는 분

도 움 어 디 서 오 는 가 그 - 어 디 서  
 나 고 쉬 지 - 든 환 난 을 지 면 케 하 시 며

천 지 지 으 신 야 궤 님 나 의 하 나 님  
 님 의 해 - 와 람 궤 의 달 나 해 치 못 하 시 고  
 나 의 영 혼 을 중 홀 히 보 살 피 하 시 고

항 상 도 - 와 주 심 을 내 가 아 네  
 나 의 그 - 늘 되 시 어 났 지 으 키 시 네  
 지 금 부 - 터 영 원 히 지 키 시 네

##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온갖 소리는 잠잠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사도행전 17:22~31 ... 최선아 집사

성서교독 시편 66:8~20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모든민족 경배하네 우리들의 하나님을 소리높여 노래하여 그소리를 듣게하네  
 -낮고낮은 우리들을 지키시는 주하나님 위험한곳 내디딜까 발걸음을 이끄시네  
 우리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주하나님 도가니에 은녹이듯 우리단련 시키시네  
 -그물안에 걸리게끔 우리들을 내몰고서 등에다가 무거운짐 짊어지게 하시었고  
 사람들이 우리머리 짓밟도록 하셨으나 그고통을 견뎌내자 풍족하게 만드셨네  
 -번제물을 가지고서 주님집에 왔습시다 귀한제물 바치면서 드린서원 지킵니다  
 이서원은 제임으로 주께드린 약속이라 제가고난 받을적에 주께드린 약속이라  
 -이제제가 제물들고 주님께로 왔습시다 번제제사 드리면서 드린서원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다모여라 우리주님 행한역사 증거하며 선포하자  
 -주님앞에 달려나와 도우소서 소리치며 입을 열어 구원의주 높이찬양 하였도다  
 거짓생각 악한의도 내마음에 가득하면 거룩하신 우리주님 응답하지 아니하네  
 -내가올린 도움간구 응답받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도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리 우리주님 찬양하리 나의간구 들으시고 은혜내려 주셨도다

둘째말씀 베드로전서 3:13~22 ... 최선아 집사

\*셋째말씀 요한복음 14:15~21 ... 최선아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살아있음” ... 이춘우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 2, 3절 ... 다 함께